

AUTHOR 배경식

TITLE 교회 정치: 칼빈의 장로교 정치와 제3의 길

IN 최근의 칼빈연구

(March,2001):285-305

이라고 생각한다. 복음화는 선교이며 선교가 단지 복음화는 아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을 위해 맡기신 전체 의미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복음은 항상 초청인 것이다. 복음화하는 것은 기쁨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것은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며,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희망이다. 복음은 감언으로 유혹하는 것 혹은 위협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언제나 동일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되어야 한다. 복음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현재의 선물로 주는 것이며, 동시에 영원한 행복의 보장으로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칼빈의 신학은 선교적으로 매우 유익한 부분을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원하신다. 시편 67편과 관련지어 생각해보면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이다. 세계 만민이 구원을 얻고, 주를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궁극적인 나타남이다.

제 11 장

교회 정치 : 칼빈의 장로교 정치와 제3의 길

배경식 | 한일장신대학교 · 조직신학

1. 서언

영국의 경제사회학자 앤서니 기든스(Anthony Giddens)의 『제3의 길』은 구식 사회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에서 인류가 지향해야 할 정치, 경제, 사회적 전망을 제시한 중도 좌파적인 정치이론이라 할 수 있다.¹⁾ 전자는 시민사회와 시장의 자율성을 통제함으로써 경직된 관료제를 가져와 현실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약화시키며, 후자는 개인의 이기심을 존중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나 소외층의 인간적 권리를 등한히 함으로써 공동체의 통합을 이루어 내기가 어렵다.

제3의 길은 이러한 현실감 없는 이상주의와 이상을 도외시한 현실주의를 한데 묶어 이상적인 정치이념을 만들자는 것이 그 목표이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클린턴, 영국의 토니 블레어, 그리고 독일의 게하르트 슈뢰더가 이 정치이념을 가지고 일하는 지도자들이다. 구식 사

1) 앤서니 기든스, 한상진·박찬욱 역, 『제3의 길』(서울: 생각의나무, 1998), 29 이하. 기든스는 제3의 길을 “새로운 세계에 사회민주주의를 적용시키고자 하는 사고와 정책의 틀인 동시에 구식 사회민주주의(old social democracy)와 신자유주의(neoliberalism)를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라고 말한다.

회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추구하면서 기회의 평등과 약자 보호, 자율성, 공동체, 책임을 동반한 권리 등 이루어낼 과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²⁾

오늘 한국교회 역시 새로운 정치와 지도이념이 필요하다. 특별히 장로교 안에서 목회를 서로 돕고 협력해야 될 목사와 장로들 그리고 평신도들 간에 불신의 벽이 높아진 것은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며, 나아가서는 장로교의 근본 이념을 간직하지 못한 채 장로교 아닌 장로교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장로교는 원래 개신교의 여러 교파 가운데 한 분파로서 존 칼빈의 지도와 전통을 계승하는 개혁교회의 한 교단이다.

칼빈은 프랑스 노용 태생으로 그의 나이 27세 때 『기독교강요』라는 4권의 책을 쓴 이후 개혁파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기독교강요』는 사도신경의 틀을 가지고 쓴 그의 신학 내용이다. 1권은 하나님, 2권은 그리스도, 3권은 성령, 그리고 4권은 교회에 관한 내용이다.

『기독교강요』에서 말하는 칼빈의 성서해석은 그리스도 중심적이며 성령의 역사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성서의 권위와 신빙성이 가톨릭에서처럼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성서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교회는 성서의 기반 위에서 있으며(엡 2:20)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확립된다³⁾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칼빈은, 로마 가톨릭 교회는 비성서적인 감독 정치를 하는 곳이

2) 진윤태, 『제3의 길, 제3의 길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서울:새로운사람들, 1999), 8 이하 참조. 기든스와 블레이어의 제3의 길은 새로운 정치철학으로서뿐 아니라 정책방향으로서 많은 논쟁을 제공하고 있다. 제3의 길이 추구하는 새로운 정치적 가치들—기회의 평등, 책임, 공동체—과 정책 방향은 많은 나라에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 점점 국제적인 공감대를 얻어가고 있다.

3) 존 칼빈, 『영한 기독교강요』, 제1권, 편집부 번역(서울:성문출판사, 1993), 139 이하. 칼빈은 『기독교강요』 1권 제7장에서 성서의 권위는 성령의 증거에 의해 확립되어야 하며 성서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의한 것은 사악한 것이라고 한다.

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그가 생각하는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고 성례가 신실하게 시행”되는 곳이다.⁴⁾ 칼빈은 성서가 제시한 최초의 교회 정치체제는 장로정치였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제도가 계급화하고 교권주의가 인간적인 전통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가톨릭 교회의 교황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다.

칼빈이 450년 전 제네바에서 신앙과 신학의 개혁을 할 때 교권주의적인 가톨릭 신앙과 무신론적인 세속사상에 의해 강한 저항을 받았던 것은 부정할 수가 없다. 더욱이 기독교 내에 언제나 기승하는 신비적이며 열광주의적인 신앙은 개혁의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들을 그는 “성서를 버리며 계시를 뛰어넘어 하나님 없는 불경건의 원리에 자신들을 던지는 광신과 미신”⁵⁾이라고까지 심하게 지적한다.

장로교가 칼빈의 지도하에 제네바에서 신앙과 신학의 개혁을 교회와 사회의 전반적인 면에서까지 추진해나갔다면 오늘의 시대에서 보여지는 21세기의 시대정신(Zeitgeist)인 제3의 개혁이 신앙적으로는 이미 칼빈에게서 보여진 것은 아닐까? 필자는 21세기의 신앙적인 제3의 개혁운동은 장로교가 장로교라는 모습을 되찾을 때 장로교를 통해 가능하다고 보며, 이런 면에서 장로교의 참된 모습을 되찾자는 것이 이 글을 쓰는 의도이다.

본 논고를 통하여 우선 장로교가 무엇인가를 정의한 후, 세계의 각 지역에서 발전된 장로교의 다양한 모습들을 섭렵해보며, 칼빈의 정신을 계승하는 장로교의 기본 이념을 제3의 길이라고 할 때 이 길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제시하는 시대정신의 대안으로서 가능한 것인가를 살펴해보려고 한다.

4) 오덕교, 『장로교회사』(서울:합동신학교 출판부, 1995), 73.

5) 위의 책, 199 이하. 성서 이외에 하나님께 이르는 특별한 길은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궁극적인 목표로 인도하는 분은 성서의 저자인 성령이시다.

2. 장로교 정치와 그 운동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파렐을 만나게 된 것은 제네바를 개혁파 신앙 운동의 근거지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칼빈의 개혁 운동이 시(市) 정부와의 충돌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1541년 그의 개혁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자유와 질서, 훈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개혁주의 운동을 착수하였다. 그 해 9월에 제네바 교회 헌법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장로교회 정치체도의 중요한 원리가 되었다.

칼빈은 장로교 정치의 기본 원칙을 그의 『기독교강요』에서 언급한 바 있으나 제네바에서 일하면서 그 적용을 위해 구체적으로 『정치조례집』(The Articles, 1537)과 『교회규율서』(The Ecclesiastical Ordinances, 1541, 1561)를 마련하여 실행에 옮겼다.⁶⁾

1) 조직

칼빈은 초대교회 조직에 따라 직분을 목사, 교사, 장로, 집사로 구분하였다.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에 대해서 “목사와 교사는 교회 내의 정상적인 직분이고 처음 세가지의 직분인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그의 나라의 초창기에 세우셨고 필요에 따라 가끔 부활시키시는 직분”⁷⁾으로 이해하였다.

목사는 설교와 성례를 집행하고, 교사는 박사로서 학교에서 신학 강의를 통해 성직자 양성 교육에 종사하며 성서를 해석하는 일을 맡았다. 칼빈은 목사와 교사의 직분을 같은 것으로 보았다. 장로는 교회 내의 일을 돌보면서 시민들의 생활을 지도하며 교회와 사회의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고, 집사는 감독의 지도하에 교회의 재정과 병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하게 하였다.

집사에게는 두 종류의 일이 있는데 교회의 구제사업을 관리하는 것과 병자나 빈민을 돌보는 것이다. 성서에 나오는 디아코니아, 즉 기독교 사회봉사를 담당하게 했다. 집사들은 오늘날의 사회보장제(social security)를 집행하는 사회복지 업무를 감당하였다. 성서에서 집사는 구제물자를 분배하며 가난한 자를 돌보고 빈민구제금을 관리하는 일을 교회로부터 맡은 자들이다. 칼빈은 사회보장제를 시행하면서 구걸을 법으로 금지하였다.

누가는 집사의 기원과 임명 그리고 직분에 대하여 구제와 재정 출납을 하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 사람을 택하도록 하였다.(행 6:1-6) 칼빈은 이것에 근거하여 제네바에서 개혁 운동을 할 때 두 종류의 집사를 세웠다. “구제품을 분배하는 집사들과 병자들을 돌보는 집사들이었다.”⁸⁾

칼빈은 성직 계급제도를 반대하여 성직자의 평등주의를 제도화하였으며 시 의회에서 선출되는 평신도 장로들은 성직자와 함께 교회 정치를 담당하게 하였다. 이 제도는 서구 민주주의의 발달에 공헌하는 제도가 되었다. 제네바 시에 대한 교회의 통치는 목사 전원과 12명의 장로들로 구성된 종교회의가 책임지고 있었다.

이들은 매주 목요일 아침에 모여 장로치리회(Consistory)라 불리는 일종의 장로법원을 운영하였다. 교회 안에 일어난 무질서와 방종의 치료책을 토론하였으며 형제애로 권면하였다.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출교하였다. 권징에 해당하는 죄로서는 “저주 행위, 주막에 들르는 행위, 간음, 주일에 카드 놀이하는 것, 음란한 노래를 부르는 것, 자살을 시도하는 것” 등이었다. 아내를 구타하거나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의식을 따르는 일은 장로법원에 소환되었다.⁹⁾

6) 한국기독교장로회 교단통합연구위원회, 『장로교는 무엇인가?—역사·신학·정치·에베—』(서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1989), 105.

7) 『기독교강요』, 제4권 3장, 99, 참조.

8) 칼빈은 사도행전 6장의 구제사업을 맡은 자들을 집사라고 하였다. 이 사람들을 오늘날의 안수집사나 장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참조: 『기독교강요』 제4권 3장, 110 이하.

9) 오덕교, 앞의 책, 72.

제네바 칼빈 장로회의 임무는 마태복음 18:15-17을 따라 교회의 훈련을 관장하는 일이었다. 그 원리는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예는 범죄를 벌함으로써 유지된다고 하였다. 1542년부터 46년까지 제네바의 신정(神政) 아래에서 78명이 추방을 당했으며, 57명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당시 제네바의 인구가 2만 명이라고 할 때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수는 적은 숫자가 아니다.¹⁰⁾

2) 소명과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진정한 사역자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합당한 방법으로 소명을 받고(히 5:4), 그 소명에 응답하는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주장하려 할 때 언제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는 소명과 자기 직분을 충실히 이행하였다는 사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롬 1:1, 고전 1:1 이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때 오직 주의 명령으로 사도직에 임명되었다는 것과 위임된 일을 충실히 수행하였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본적인 일 중의 하나이다. 이 두 가지의 소명과 사명의식 중 하나도 없다면 교회 내에서 발언할 권리가 없다.

교회의 사역자들은 교리를 믿으며 생활이 거룩하고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키거나 그들의 사역에 수치가 될 만한 결함이 없는 자여야 한다.(딤후 1:7, 딤후전 3:1-13) 초대교회는 장로를 세웠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였다.(행 14:23) 사도직을 포함한 교회의 직분은 사람에게 의해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주의 명령으로 된 것이다. 바울이 자신의 모든 편지들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

10) J. L. 나이브, 서남동 역, 『기독교교리사』(서울:대한기독교서회, 1965), 433 이하. 칼빈의 잘못은 교회의 이단자를 대할 때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이다. 그리스도 역시 범죄한 형제들을 진심으로 충고한 후 추방하라고 하였다. 칼빈은 루터의 “죽음으로 모든 논쟁을 해결한다.”(Mit dem Tode loesen sie alle Argumente)는 중세기적 방법을 선택하였다.

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자”(참조, 갈 1:1, 12)라는 특별한 선택 의식은 그로 하여금 이방 세계의 선교라는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3) 생활 규칙

칼빈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생활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말한다. 이러한 삶의 기본 철학에 근거하여 제네바 종교회의는 엄격한 생활규칙을 선포하였다. 이것을 그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한다. 경건의 훈련은 경건한 자의 어머니인 교회의 교육을 통해 이루어지며 교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만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다.¹¹⁾

(1) 신앙

시민들은 주일에배에 참여해야 하며 사치와 낭비와 도박을 금했으며 높은 도덕적 생활을 하도록 하였다. 제네바 시에 새로운 신앙생활 혁명이 일어난 것이다. 당시 제네바를 방문한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자 존 녹스는 제네바 시를 “사도 시대 이후 지구상에 있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학교”라고 평가하였다.

(2) 국가 정부

정부에 대한 칼빈의 입장은 ‘하나님의 정부’이다. 교회와 국가는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교회는 사회의 양심이며 독재자에 대한 항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다. 국가 정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통치되어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그리스도인은 정부에 복종해야 한다.

11) 칼빈, 『기독교강요』, 제4권 3장 9 이하.

그러나 만일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어긋나는 불의한 일을 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형벌을 받든지 정부에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새로운 정부를 선택해야 한다.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무조건적인 순종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칼빈의 입장이다. 이러한 정신이 서구 기독교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었다.

(3) 경제

칼빈은 경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져 방직공장을 세웠으며, 시계공업 발전을 위한 기술지원을 시 의회에 청원하였다. 돈거래와 금리를 인정하여 오늘의 산업 자본주의의 길을 열었다고 볼 수 있다. 기업 활동은 이윤 추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웃과 인류 사회에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기독교 정의가 현실 사회에 실현되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이 교회에 요구된다.

칼빈은 제네바 시의 모든 시민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육을 통해 철저히하고도 엄격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도록 장려하였다. 1559년에는 제네바 대학을 세우고 '경건과 학문의 전당'이라고 하였다. 장로교 계통의 신학 기관에서 경건과 학문을 교육 훈련의 두 축으로 삼는 것은 칼빈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다.

칼빈이 신앙생활의 1호로 삼은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Soli Deo gloria)이다.¹²⁾ 오늘의 장로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엄격한 신앙생활, 신학 훈련, 신학의 체계화를 추구하는 것은 칼빈에게서 나온 것이다. 이런 면에서 칼빈의 신학을 "하나님의 영광의 신학"이라고 명명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12) 루터나 칼빈을 중심으로 한 개혁자들의 5가지 개혁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오직 믿음만으로(sola fide), (2) 오직 은혜만으로(sola gratia), (3) 오직 성서만으로(sola scriptura), (4) 오직 그리스도만으로(solo christo), (5)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soli Deo gloria)이다. 참조, 손병호, 『장로교회의 역사』(서울: 도서출판 그리인, 1993), 330 이하.

3. 유럽의 장로교회

1) 프랑스

위그노와 왈도 파 신도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칼빈이 파송한 150여 명의 개혁주의자들이 활동을 하여 개신교 교회가 만들어졌다. 프랑스 장로교회는 제네바에서보다 더 발달된 교회 조직을 갖는다. 당회(Consistory)와 노회(Colloguy), 지방대회(Provincial Synod), 그리고 총회(National Synod)라는 네 가지의 치리기구를 만들었다. 이것이 현대 장로교회 정치제도의 기원이 되었다. 중앙으로의 연합과 동시에 개교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이다. 1598년 헨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표하여 프랑스 장로교회에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었으나 1610년 루이 14세가 왕위를 계승하자 "하나의 국가, 하나의 군주, 하나의 신앙"을 내세워 위그노에 대한 탄압이 가해지기 시작하였다.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 약 50만 명의 장로교인들은 영국, 독일, 네덜란드, 미국 등지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망명을 떠났다.

2) 네덜란드

필립 2세에 의해 개혁주의자들이 핍박을 받았으나, 윌리엄 공작은 40년 간 북부 네덜란드를 스페인의 지배에서 해방시켜 개신교들에게 자유를 주었다. 개신교도들은 개혁적 신앙과 교리 연구를 계속하였다. 소회, 대회, 총회로 교회를 조직하였고, 벨기에 신앙고백을 채택하였다. 만인 구원을 주장하던 알미니안주의를 반대하고 도르트 회의를 통해 만든 칼빈주의 5개 조항은 다음과 같다. 흔히 5개 조항의 영문 첫 글자를 따서 '톨립'(TULIP)이라고도 불린다.

(1) 인간의 전적인 타락(Total Depravity)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의 존재 전체가 죄로 물들어 있으며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타락했다는 것이다. 날개 부러진 새가 날아갈 수 없으며 다리가 부러진 동물이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는 자신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적인 부패와 무능을 말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성령의 도움을 간구해야 한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롬 3:10) 인간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렘 17:9) 자신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깨닫는 자가 구원의 감격을 알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제1단계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이다.

(2) 무조건적인 선택(Unconditional Election)

하나님께서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만세 전부터 미리 예정하셨다는 것이다. 이 선택은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에 근거한 것이지 나의 의나 행위 때문에 된 것이 아니다. 죄에 대한 나의 무지와 전적인 타락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엡 1:4-6, 딤후 1:9, 계 13:8, 롬 8:29, 30, 9:11, 행 13:48, 살 후 2:13) 죄인 된 나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해주셨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3) 제한된 속죄(Limited Atonement)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구원에 이르도록 선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한 것이지 버림을 받은 자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어린양 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다.(요 10:15, 롬 8:33, 요 17:2, 9, 12:24) 이것을 특별구원이라고도 한다.

(4) 불가항력적인 은혜(Irresistible Grace)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거절할 수 없다. 인간은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음을 경험하고 있다.(마 22: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 극진하신 사랑은 선택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의 구원을 이루신다. 성령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도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신다.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거절할 수 없다.(롬 8:29, 30, 엡 2:1-10, 딤후 1:9, 딤텔 3:5, 골 36:27, 요 10:26-30, 행 13:48, 롬 5:10)

(5) 성도의 보호(Preservation of the Saints)

하나님은 구원으로 예정된 성도들을 거룩한 생명과 의와 참된 지식으로 보호하신다. 우리 속에 내재하시는 성령님은 성도들이 이러한 확신을 갖도록 하신다.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벧전 1:5) 성도들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낙심할 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보호는 하나님의 은혜로 항상 우리 가까이에 있다.

알미니우스는 칼빈주의 5개 조항 중 무조건적인 선택과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완전히 부정하였다. 그 이유는 두 개의 조항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빼앗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을 통해 온다는 칼빈의 주장을 거부한 결과이다.¹³⁾ 우리나라의 보수적인 장로교회는 미국을 거쳐 전래된 네덜란드 장로교회의 전통에서 있는 신앙과 신학을 받아들인 교회들이다.

13) 폴 칼슨, 오성종 역, 『장로교의 유래』(서울:생명의말씀사, 1984), 173 이하. 알미니우스와 그의 추종자들은 이의사항(Remonstrants)을 제기하였는데, 알미니우스의 5개 조항으로 알려진 이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선택과 정죄는 개인의 신앙과 불신앙의 조건에 달려 있다. (2)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나 신자만이 그 혜택을 누린다. (3)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온다. (4)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것이 아니다. (5) 구원의 체험 이후 잃어버림은 미해결의 문제로 남아 있다.

3) 스코틀랜드

존 녹스(John Knox)는 개혁운동가이다. 1542년부터 개혁주의적 설교를 하였다. 12년 간 영국,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칼빈 사상을 익힌 후 1559년 본국으로 돌아와 개혁 운동을 전개하였다. 영국 왕 엘리자베스 1세가 프랑스 세력의 스코틀랜드의 개입을 반대하자 그는 1560년 가톨릭 교회의 교리, 예배, 정치제도 등 일체를 금지하고 칼빈주의 개신교로서 스코틀랜드의 교회를 법제화하였다. 이때 제정한 스코트 신앙고백은 “오직 은총에 의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구원 행위, 말씀의 선포와 성례전이 집행되는 교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서의 권위”가 중심 내용이다. 이 고백은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채택될 때까지 스코틀랜드에서 사용되었다.

녹스에 이어 맬빌이 교회정치체제를 감독주의에서 장로회주의로 확정시켰다. 1843년 스코틀랜드의 자유교회가 세워져 회중들이 성직자를 직접 선택하게 되었다. 1900년에는 연합 자유교회가 세워져 국가교회가 아닌 자유교회로서 발전하였다.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는 에큐메니칼 정신에 입각한 전세계 장로교회의 제도적 모델이 된다.

4) 영국의 장로교회

영국의 장로교는 청교도 운동과 연관을 가지고 보아야 한다. 1567년부터 시작된 청교도 운동은 성서에 입각하여 신앙과 생활에 청순함(purity)을 목표로 하였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장로교 교인들이었다. 캠브리지 대학의 카트라이트 교수를 중심으로 장로교 운동이 시작되었다. “성서의 권위는 칼빈주의 신학에 따르며, 교회정치는 목사와 장로들의 회의를 통하여 하며 회중들이 목사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1643년 영국 의회는 웨스트민스터 회의를 소집하여 예배모범과 장로회 행정체제를 제정하였고 1646년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완성하였다.

5) 미국의 장로교회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으로의 탈출을 한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졌다. 미국 장로교회의 아버지는 매케미이다. 그는 1706년 노회를 조직하였다. 미국 장로교인들은 미국의 독립전쟁에 헌신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들은 박해를 피해 신대륙에 이주해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유럽 국가의 지배를 원치 않았다.

독립혁명 후 종교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으며, 1788년 미국 장로교회가 되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새로 독립된 미국 교회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였다. 이들의 과제는 신개척지의 복음화였다. 이를 위해 헌금도 하였고, 미국을 그리스도에게 이끄는 일에 전념하였다. 1818년 노예제도의 문제가 생기면서 남부와 북부 그리고 보수와 진보라는 입장의 차이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남장로교는 북장로교보다 보수적이다. 1848년 교회가 사회적인 금주 운동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1880년대의 신신학적인 성서 비판이나 진화론 같은 과학사상을 거부하였다.

남북전쟁(1861-65)은 미국 장로교회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1) 교회가 정치적인 정부와 연합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2) 진화론과 고등비평등의 문제가 생겨나자 다섯 가지의 근본주의적인 교리와 신학이 생겨나게 되었다. 근본주의 신학이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의 거센 바람이 미국으로 휩쓸려 들어왔을 때 현대주의와 기독교는 서로 융화할 수 없다는 개신교 내의 보수적 신앙 운동을 총칭하는 것이다.

이 신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축자영감설을 기초로 하는 구속신앙을 주장하였고 독일의 사변주의 신학의 산물인 고등비평, 현대주의 그리고 세속화 신학에 반대하였다. 미국 내에 거주하던 경건주의자들과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주의 재림론자들은 지역별로 1870년대부터 성서회의(Bible Conference)라는 모임을 조직하고 보수신앙 확립에 주력하였다. 이 조직체는 1895년 “나이아가라 성서대회”에서 다섯 가지 근

본 신조를 확정하였다. 이것들은 (1) 성서 무오설, (2)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3)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 (4)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5)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기적의 사실성) 등이다.

근본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그 특징을 드러낸 것은 1910년경으로 성서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저술된 12권의 책 『근본교리들』(*The Fundamentals*)이 디슨(A. C. Dixon)과 토레이(R. A. Torey)에 의해 공동 집필되어 무려 300만 부나 미국의 각 교파 교역자들에게 배포되었고, 1919년에는 세계 기독교 근본주의자협회를 조직하였다. 이렇게 시작된 근본주의 운동은 침례교와 장로교 안에서 심한 신학적인 대립과 갈등을 야기해왔는데 대표적인 것이 교역자 배척 운동과 진화론(Affen-Prozess) 반대 그리고 메이첸을 중심으로 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설립이다. 근본주의 신학 운동은 '기독교 내의 반 현대 운동들'이며 보수주의와 경건주의 그리고 성서주의, 복음주의를 내세웠는데 보수주의 신학자의 하나인 카넬(E. J. Carnell)은 근본주의를 "개신교 정통주의의 극우적인 요소"라고 잘 표현하였다.

성서의 권위를 높이며 일반 학문보다 경건을 위주로 하는 교육 체계를 세우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 선 근본주의자들은 1611년 판 흄정역(King James Version)을 무오류의 성서로 인정한다. 이들은 성서의 신적인 저작권을 극도로 주장하고 인간은 신의 계시를 받아 쓰는 기계로 간주하는데, 이는 성서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보다 성서 자체를 믿는 신앙에 가깝다. 윤리관에서도 근본주의자들은 선한 생활을 일반 생활에서 분리하는 경향이 있어 관념적인 사고방식이 이들의 생활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원리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에 엄격하고 완고하며 독단적인 특색을 가진다.

위에서 보는 대로 정통주의와 근본주의는 공통된 분모를 가지고 있음은 사실이나, 성서의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근본주의는 성서의 문자주의와 숭배주의에 매여 신앙의 원리에만 머문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복음을 경시하게 되지는 않을까? 근본주의자들이 근본주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을 부정

하고 그 부정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구원을 내세운다면, 기독교의 분파주의에 머물러 다른 것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에큐메니칼적 선교에 반하는 것은 아닐까? 근본주의 신앙이 확대되면 교회와 세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아닐까?

미국 장로교회의 신학 논쟁은 구 프린스턴 전통을 주장한 전투적 보수주의자인 메이첸과 온건한 보수주의자인 어드만과의 논쟁에서 찾을 수 있는데, 메이첸은 진실한 성서적 선교를 위하여 미국 장로교회를 새로 조직하였다. 이러한 근본주의 신학이 박형룡에 의해 한국에 전수되었으며 이는 1950년대 한국 장로교회를 분열케 하였다. 이는 이미 1920년대부터 미국에서 예견된 대로 "교회 안의 전쟁들"이었다. 1933년에 발간된 자유주의적 선교 연구에 관한 책 『선교의 재사고』(*Rethinking Missions*)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 언급되지 않고 성령과 성서가 완전히 무시되어버렸다."면 이에 대한 반발로 북장로교와 그 선교부를 떠난 선교사들이 많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 이들이 신사참배를 강하게 반대하였고 해방 후 고려파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였다.

한국의 장로교회 안에서는 평양신학교 교수들이던 김재준, 송창근, 채필근 등의 글들이 자유주의적 성향을 가진 내용들이라 해서 「신학지남」에 기고가 정지되었고 창세기 저작자 문제, 여권신장과 성서해석, 어빙돈 주석서 문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에서의 탈퇴 등 1935년부터 한국교회는 자유나 정통이냐라는 양자택일 식의 도식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이러한 결정 배후에는 박형룡과 허대전(Gordon Holdcroft)이 있었다고 한다.

한일장신대학의 전신인 한예정, 이일성경학교는 남장로교에 속해 있으므로 신사참배로 인한 폐교가 1940년부터 1948년까지 있었음을 『한일신학대학 70년사』에서 볼 수 있다. 신사참배가 과연 신학적 해석을 넓게 함으로 가능하며 용납할 수 있는가? 이러한 문제는 우리의 삶속에서 유형은 다르지만 지금도 계속되는 신앙과 신학의 근본 물음이 아닐까?

근본주의는 현대 지성주의에 반대하여 비판과 반대를 하는 공격

적인 분리주의적 분파주의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근본주의는 북장로교회의 신학 논쟁을 통해 한국에 이식되었으며 한국에서는 김재준과 박형룡의 신학 논쟁으로 비화되었고 신사참배와 일부 선교사들의 자유스러운 입장이 교회 분열로 근본주의 신학을 가능케 하였다고 한다. 좁게는 한일장신대학이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산하의 1980년대의 장신대학의 신학선언과 1986년의 신앙고백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학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신학이 결국 미국 내에서의 신학 논쟁에 휩싸여 보수와 정통의 구별이 없이 근본주의라는 이름하에 교회 안의 전쟁으로 치달았다는 것과, 보수신학이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성서 제일주의를 견지하였음은 근본주의가 갖는 편협성과 비타협주의적인 그들대로의 신앙생활 태도가 그것을 가능케 하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을 해보게도 한다. 그렇다면 근본주의로 대별되는 보수와 자유의 진정한 만남과 융합점은 과연 어느 곳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자유이고 보수는 보수여야 하는가? 그렇다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엡 4:5-6)는 말씀에 위배되는 일은 아닐까? 지나친 자유주의의 신학을 견제하고 성서신학의 순수성을 보수하려 한 그 노력과 공적을 긍정하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갖는 개방성과 현실 문제에 관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근본주의의 틀이 재정립된다면 근본주의는 한국 장로교회의 신학 정립에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본다. 이 일은 21세기를 맞는 한국 기독교의 과제이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다.

유럽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새로운 사회복음 운동이 나타났으며, 1961년 미연합장로교에서 채택한 신앙고백은 이러한 흐름에서 나온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인간 삶의 모든 방면, 즉 사회적, 문화적·경제적·과학적·기술적·개인적·단체적인 모든 것을 포함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고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흠여지는 교회” 상을 다양한 형태로 추구하고 있다.

6) 캐나다 장로교회

캐나다 장로교회는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 의해 세워져 그곳 장로교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교회이다. 1875년 캐나다 장로교회를 설립하였으며 한국에서 선교사업을 시작한 맥킨지는 이곳 출신이다. 1925년 감리교, 회중교회와 연합하여 캐나다 연합교회를 설립하였다. 함경도와 간도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다가 기장과 협력하여 오늘에 이른다.

4. 한국의 장로교회

한국에 개척파 교회가 접촉하게 된 것은 1832년 네덜란드 선교사 쿠츨라프가 군산에 상선을 타고 의사와 선목의 자격으로 온 것이 처음이다. 이분의 선교사업에 대해서는 기록된 바가 없다. 1876년 만주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4명의 한국인에게 세례를 준 존 로스와 존 맥킨타이어의 선교활동은 한국장로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은 만주에서 한국 내에서의 천주교 박해 소식을 듣고 1882년 신약을 번역하고 국내로 매서인을 파견하여 선교활동을 시작하였다. 1883-84년에는 간도에서 70여 명이 로스 목사와 그 동역자들에 의해 세례를 받았다.

국내에서는 의료선교사 알렌이 선교활동을 하고 있었고 1884년 솔래에 한국 최초의 교회가 설립되었다. 한국에 정식 선교사가 입국한 것은 1885년이다. 북장로교 소속 언더우드와 파송을 받고 왔으며 “부활의 주님께 간구하오니 어둠 속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한국 백성에게 밝은 빛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

남장로교의 한국 선교는 1892년 레이놀즈 등 7명의 선교사가 파송되면서부터 시작된다. 이들은 가톨릭이 강한 전라도를 선교지로 선택하였고, 데이비스와 그의 자매를 중심으로 한 호주장로교는 1889년 경상남도를 중심으로, 그리고 캐나다 장로교는 맥킨지에 의해 함경도

선교를 시작하였다.

한국의 선교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선교정책을 세우게 된 것은 1893년 선교사들이 조직한 선교공의회 의결에 의한 것이다. 이 모임은 “장로회 정치를 채용하는 선교공의회”(The Council of Missions Holding the Presbyterian Form of Government)로서 북장로교, 남장로교, 호주장로교가 모두 참여하였는데 이들은 중국에 주재하던 존 네비우스를 초청하여 네비우스 선교방법을 한국 선교정책으로 채택하였다. 자립선교, 자립정치, 그리고 자립보급이었다.¹⁴⁾ 이는 교회의 모든 행정과 재정에서 개교회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자립정책이었다.

한국에서 선교를 한 분들은 대개 보수 개혁적인 사상을 가진 분들로서 경건주의적이고 복음적이었다. 그리고 부흥집회에서 희심의 경험을 한 분들이다. 이들의 신앙은 민주적이고 청교도적이었다. 한국인의 입장은 선교의 근본 동기와는 다른 점도 있었다. 가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고 불의에 저항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독교에 입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105인 사건, 3·1운동은 그 대표적인 것이다.

1935년 창세기의 저자 문제로 시작된 박형룡의 근본주의와 김재준의 자유주의의 논쟁은 장로교의 분열을 가져오게 되었다. 1953년 한국기독교장로회가 새 교단을 만들고 이어서 합동과 통합의 분열은 계속 이어져 1986년 현재 장로교가 50여 개 그리고 지금은 군소교단까지 100여 개가 넘는다는 통계가 있다. 분열의 원인은 신학적인 것과 비신학적인 것들로 나누인다. 신학적인 것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 성서의 해석이다. 비신학적인 것은 인맥, 지역감정, 교권투쟁, 식민주의적 선교정책 등이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한국기독교장로교회는 한국의 신학을 새롭게 하면서 교회의 사회적 참여를 해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교단이 1999년 교육 주제를 “고치시고 싸메시는 그리스도,” 2000년도 교육 주제를 “인류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자연의 문제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 안에 넣은 좋은 주제라고 보여진다.¹⁵⁾

5. 결론

교회는 역사의 한복판에서 예수 운동을 재현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Soli Deo gloria)라는 신앙 양심을 가지고 개혁의 운동에 참여해야 한다.

제네바라는 한 도시에서 칼빈의 “제네바 시의 성역화, 복음화”라는 기치 아래 시작된 장로교회는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각 나라에서 그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발전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장로교의 역사는 수난의 역사요, 개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장로교는 칼빈의 개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원래부터가 신앙은 보수를 견지하였으며 경제, 사회적으로는 개방의 정책을 썼던 것을 보게 된다. 오늘날 제3의 개혁을 하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이념을 그대로 볼 수 있다. 인간의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정책을 쓰면서도 정치, 경제적으로 최소한의 통제를 함으로써 미래의 복지 사회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제3의 길이다.

칼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신앙과 신학을 가지고 국가를 교회와 같은 신앙적 위치에 두면서 산업화까지 시도한 것은 당시의 개혁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개혁이었다. 이는 국가의 교회화이며 동시에 교회의 국가화라고도 볼 수 있다.

칼빈의 정신은 이후 유럽대륙에 계승되어 존 녹스나 위그노 파

15)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는 성서구절은 골로새서 1:27이다. 소망은 인간 삶의 구성요소이며, 인간 존재에 필수적이며, 그리고 신앙의 동반자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평화의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으로서 소망이 되신다는 것이다. 참조: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교육부 편,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교육자료 21』(서울: 장로교출판사, 1999).

14) 레펠처 A. 로에취, 『세계장로교회사』(서울: 성광문화사, 1980), 210.

들, 윌리엄 공작,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대륙을 찾은 청교도들과 매케미 그리고 언더우드, 레이놀즈 등에 의해 전세계적인 장로교의 모습을 곳곳에서 실현해내었다. 이들은 모두 신앙을 견지하면서 복음을 가지고 사회의 개혁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미국 장로교의 하버드나 프린스턴 등 대학을 통한 복음 전파와 서부 개척 정신이 없었던들 오늘의 미국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 장로교가 기여한 가장 우선적인 것은 우상의 타파와 봉건주의적인 사회의 개혁이라고 보여진다. 한국은 장로교의 전래와 함께 새로 깨어난 나라이다.

한국에 장로교가 뿌리를 내린 지 어언 115년을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당연 장로교회가 장자 교회이며 특히 통합측이 대교단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복음 전파라는 지상의 과제를 책임 있게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선결의 과제들이 남아 있다. 신흥종교가 난무하는 사상적인 혼란의 시대에서 장로교회는 무엇보다 과거의 신학적인 그리고 비신학적인 분열,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분열을 극복하고 하나가 되는 길을 교회적으로, 노회적으로, 총회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모색해야 한다. 이 일은 홀어진 장로교회의 힘을 모으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기든스가 제3의 길을 통해 국가와 시민사회에서 필요한 평등과 삶의 정치, 개인의 윤리적 자세, 민주적 가치와 같은 쟁점들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창의성 존중, 개인과 사회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조화와, 사회세력간의 합의를 이루어낸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국가 건설에 필수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¹⁶⁾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사명을 가지고 세계교회 속에서 할 일들이 많이 있다. 특히 장로교가 신앙적인 틀에 굳게 서서 온 세계의 구원이

라는 복음의 가치를 높이 들 때 나눔과 섬김의 역할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세계교회의 일들에 연대하여 참여하는 것은 과거에 선교사들에게 진 복음의 빛을 갚는 것이 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된다.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Reforming Church)라는 적극적인 정치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일을 효과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이다.

16) 진운태, 앞의 책, 10 이하. 제3의 길은 낡은 정치 이데올로기의 혼합과 절충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변화된 현실에 적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운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책임, 사회정의와 효율성, 성장과 재분배라는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정치적 가치의 대립을 극복해야 한다.